「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2호(2025. 8): 99-122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9 No.2 (August 2025)
http://dx.doi.org/10.20484/klog.29.2.5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게재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성 은 혜*
김 상 구**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1962년부터 2025년까지 「항도부산」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분석기준은 첫째, 연구자 특성으로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자 수, 연구자 소속, 연구자 직책, 연구자 지역이었다. 둘째, 연구내용으로 연구분야(대분류, 소분류)와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 및 장소적 범위를 활용했다. 셋째, 해양 주제어를 통해 관련 논문을 탐색했다. 넷째, 이를 토대로 부산과 부산항 관련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항도부산」의 발간기간에 따라 태동기(1962-1969), 조성기(1991-2015), 정착기(2016-2025)로 구분했을 때, 「항도부산」의 연구논문들은 역사학 안에서 각 시기에 따라 다양한 연구자와 분야,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양 관련 주제어 중에서 부산항의 개발 및 개항과 관련된 연구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부산과 부산항의 연계성은 그다지 밀접하다고 추론할 수 없었다. 향후에는 부산항과 관련된 부산시민의 생활, 도시, 지역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항도부산, 연구경향, 부산, 부산항, 텍스트 마이닝

Ⅰ. 서론

부산항은 1876년 처음 개항한 이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복구와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성은혜, 2024: 84). 1990년대에는 중국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와 역내 교역비중 증대, 항로 재편 등으로 동북아시아에서도 중요한 공간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와 동북아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안, 부산이라는 도시공간과 부산항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항만구역은 시민

* 제1저자
** 교신저자

과는 단절된 공간으로서 항만과 시민 삶의 질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창수 외, 2022: 112). 항만을 품고 있는 도시연구에 있어서 항만과 도시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그동안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학적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항만과 도시의 상호관계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최진이, 2020: 522).

비교적 최근 부산항과 부산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 최진이(2021: 502)의 연구에서 도시의 형성단계와 도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항만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발전에 이바지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만의 지원에 힘입어 발달한 도시가 발전하여 거꾸로 항만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공생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성숙단계를 거쳐 고도화되면 도시 생산활동에 대한 항만의 지원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부산항과 부산의 연계성은 약화된다고 한다. 이외에 현재까지 부산과 부산항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접근시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항도부산」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에서 발간하는 '부산'에 대한 지역학 전문 학술지이다.[1] 1962년에 창간하여 1969년에 7호까지 발간되었고, 1974년부터 1988년까지는 편찬위 활동이 중단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던 1991년에 제8호가 복간되었고,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되었다. 2018년에는 '등재지'로 승격되었고, 연 2회 발간하여 현재 제49호에 이르고 있다. 「항도부산」의 연구주제는 부산을 연구지역으로 하는 역사, 문학, 음악, 미술, 종교, 행정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부산이라는 연구대상을 매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적 연구의 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항도부산」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즉 「항도부산」에 게재된 연구논문들 중에서 부산항과 관련된 연구는 얼마나,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성을 추론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을 「항도부산」으로 선정한 이유는 「항도부산」이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술지로서 부산지역학 연구에서 부산항이 차지하는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도부산의 연구논문을 전수조사해서,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통계패키지는 Excel과 SPSS 27.0을 활용했다. 둘째,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양과 관련된 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구들을 귀납적으로 탐색했다. 셋째, 부산과 부산항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해양 키워드 중 부산항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부산항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의 목차와 초록을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은 R 4.5.1 버전을 활용했다. 이 과정은 「항도부산」이라는 학술지에 2025년 현재까지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 외에도 '부산에서 부산항의 의미'를 관련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025.7.9.).

Ⅱ. 연구경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모형

1. 연구경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경향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학술지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김상구(2005)는 「지방정부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경향을 논의했다. 「지방정부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는 당 학술지가 태동할 당시 부산·경남·울산·제주 지역의 문제와 그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김순석(2019)의 연구에서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연구 경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가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오는 과정에서 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지속적인 발간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당해 학술지의 발전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태화(2022)의 연구에서는 「도시행정학보」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당 학술지가 도시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이 게재되고 있고, 많은 연구자의 학술적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도시행정학보」의 연구 경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도시행정과 유사한 지방자치, 지방행정 등의 연구경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정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강지선(2019)은 공론화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들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했다. 공론화 연구는 공론화 방식 및 과정을,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공론화 영향요인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정숙 외(2020)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연구경향을 분석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국회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연구경향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방의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는데, 양적연구에 치중했으나 연구방법은 다양했고, 정책지향적 연구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권경득 외(2021)는 한국 다문화연구에 대한 경향을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수행했다. 저자들은 8개의 학술지를 선정하고, 2000년 이후 20여 년의 기간 동안 게재된 1,183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다문화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파악했다. 권정현(2023)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경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확대되고 논의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성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경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한 연구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방법을 모두 수용하여, 「항도부산」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면서, 나아가 부산과 부산항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경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적 최근의 메타 연구방법은 연구 주제어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토픽모델링 기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김정숙 외, 2020; 김성국·이태휘, 2020; 권경득 외, 2021; 이태화, 2022; 정지원·김정석, 2022). 도시와 도시 상징과의 연결성에 대한 방법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주관적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에 관련 연구들의 목차와 초록을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및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 Analysis)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데, 비정형 텍스트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분류 혹은 군집화하거나 요약하는 등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은 기존의 텍스트를 이용한 연구방법인 "내용 분석방법(contents analysis)이나 설문지 및 관찰조사 등과 같이 기간의 한정 혹은 표본 수 한정 등의 한계가 있었던 연구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태화, 2022: 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전통적 연구경향 분석과 아울러 텍스트 마이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핵심어를 탐색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양자를 보완하고자 했다.

부산 지역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항도부산」에 어떠한 연구논문들이 주로 게재되어 왔는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일은 지금까지 부산 지역학의 학술적 논의의 중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부족한 연구방향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정일 것이다. 또한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성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찰해 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분석기준 및 분석과정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기준은 상기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기준을 정리하고, 공통된 부분을 활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상기 선행연구들도 그 이전의 선행연구들 중에 메타연구에서 활용했던 축적된 분석모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상구(2005)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 연구영역, 통계기법, 연구자의 배경, 자료수집방법, 연구시기를 활용했다. 강지선(2019)의 연구에서는 일반사항과 연구자 특성, 연구내용,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김순석(2019)의 연구에서도 연구자 특성, 연구영역,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김정숙 외(2020)는 전통적 연구경향으로서 학문분야, 연구범위, 연구방법, 연구중점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으로 연구범위, 연구수준,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권경득 외(2021)는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초점, 연구비 지원여부, 참여 연구자 수 및 연구자 소속지역 등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정현(2023)은 연구시기,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목적, 연구내용을 분석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연구경향의 분석기준

선행연구	논문명	분석기준
김상구(2005)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 〈지방정부연구〉에 게재된 논문(1997~2003)을 중심으로	연구방법(설문, 문헌, 사례, 비교), 연구영역(주제분야), 통계기법(분석방법), 연구자의 배경(소속, 참여형태, 수, 지역성, 학제성), 자료수집 방법(문헌·통계, 면접, 관찰, 설문지), 시기(민선1기, 2기, 3기)
강지선(2019)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일반사항(연구 출간시기, 연구비 지원), 연구자특성(수, 직책, 학문적 배경), 연구내용(목적, 주제, 어조, 한계점), 연구방법(방법, 자료유형, 결과 이용)

김순석(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기고 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관한 실증 분석	연구자 특성(성별, 학위지역, 연구비지원, 참여인원, 활동지역), 연구영역(연구초점, 대상지역, 연구주제), 연구방법(연구방법, 데이터 종류, 분석방법)
김정숙 외 (2020)	지방의회 연구 경향 비교·분석: 국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통적 연구경향(학문분야, 연구범위, 연구방법, 연구중점),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연구범위, 연구수준, 연구방법)
권경득 외 (2021)	한국 다문화 연구의 경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초점, 연구비 지원여부, 참여 연구자수 및 연구자 소속지역, 네트워크 분석방법
권정현(2023)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연구 시기, 연구 분야, 연구 방법, 연구 목적, 연구 내용
공통		연구비 지원여부, 연구자 수, 연구자 소속, 연구자 직책, 연구자 지역, 연구분야

상기 언급한 연구경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공통된 분석기준을 토대로 분석모형을 고안했다. 그런데 기연구된 분야와 「항도부산」의 주 연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었고, 연구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차용하면서, 부산의 지역학 연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분석기준은 새롭게 추가했다.

분석과정은 5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일반사항으로 항도부산 권호와 발행연도 등 기본사항을 정리했다. 두 번째는 연구자 특성으로 연구비 지원 여부와 연구자 수, 연구자 소속, 연구자 직책, 연구자 기반 지역을 분석했다. 세 번째는 연구내용으로서 연구분야(대분류, 소분류), 연구의 시간적 분석대상으로서 시대구분, 연구의 장소적 분석대상으로서 부산 내 지역에 대한 소분류로 구분했다. 네 번째는 해양과 관련된 주제어를 탐색하여 이에 대해 세부적인 핵심키워드를 논의했다. 다섯 번째는 부산항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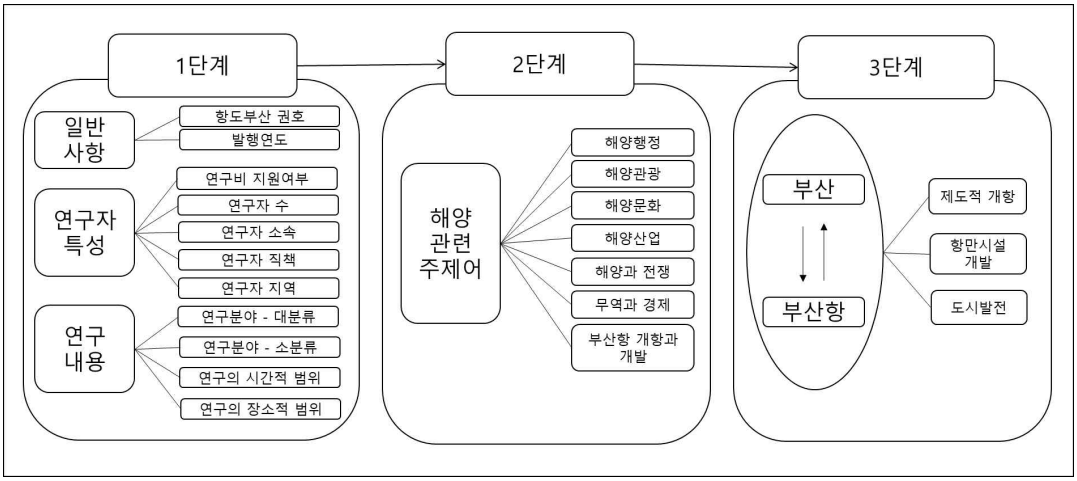
〈표 2〉「항도부산」 연구경향 분석을 위한 분석기준

일반사항	항도부산 권호	1-49
	발행연도	1962-2025
연구자 특성	연구비 지원 여부	①지원 ②비지원
	연구자 수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연구자 소속	①대학 ②연구소(원) ③박물관/역사관/기념관 ④문화재청 ⑤기타
	연구자 직책	①(명예)교수 ②(초빙.겸임)강사 ③연구(위)원 ④기관장 및 직원 ⑤ 박사과정 및 수료 ⑥기타
	지역성	①부산 ②서울 ③인천 ④대전 ⑤대구 ⑥광주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청 ⑪전라 ⑫경상 ⑬제주 ⑭국외
연구 내용	분야: 대분류	①역사 ②행정 ③문학 ④문화예술 ⑤현황자료 ⑥자료(사료) ⑦연구현황(메타연구) ⑧기타
	역사분야: 소분류	①언론·문학사 ②경제사 ③정치행정사 ④종교사 ⑤독립운동사 ⑥생활사 ⑦대외교류사 ⑧문화예술사 ⑨교육의료사 ⑩건축토목사 ⑪전쟁사 ⑫사회·민주화운동사 ⑬인물사 ⑭기타
	시간적 범위: 시대구분	①선사시대 ②삼한/독로/가야 ③신라 ④고려 ⑤조선전기 ⑥임진왜란 ⑦조선후기

		⑧개항기/개화기/근대 ⑨대한제국 ⑩일제강점기 ⑪광복 후 ⑫한국전쟁기 ⑬현대
	장소적 범위: 지역구분	①부산 전지역 ②기장 ③동래 ④만덕(기비)사/범어사 ⑤연산/복천동 ⑥초량(왜관) ⑦부산항 ⑧영도 ⑨기타
해양 관련	주제어	①해양행정 ②해양관광 ③해양문화 ④해양산업 ⑤해양과 전쟁 ⑥무역과 경제 ⑦부산항개발 및 개항
부산항 관련	핵심주제어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

분석과정 및 방법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기존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기준을 적용한 전통적 분석방법으로, 연구의 일반사항과 연구자 특성, 연구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단계는 1단계 선행연구 중에서 제목, 목차, 주제어, 초록에 '해양'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연구들을 탐색하여 이를 다시 유사 주제들로 재조정했다. 3단계는 2단계 해양 관련 논문 중에서 부산항 관련 연구들의 목차,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성 분석을 위한 과정



Ⅲ. 「항도부산」 게재논문들의 경향 분석

1. 일반현황

「항도부산」은 1962년 창간되어 최초 2회 발간한 1963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까지 연 1회 발간되다가 2017년부터 연간 2회 발간되었다. 2016년에 등재후보지로 등록되었고, 2018년부터는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어 유지하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49호에 이르고, 총 게재편수는 478편이다.

「항도부산」의 발간은 크게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62년에 창간 후에 편

찬위 활동이 중단되기 직전인 1969년까지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간은 복간된 1991년부터 등재후보지로 지정된 2016년의 직전 연도인 2015년까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간은 등재후보지로 지정된(등재지 지정은 2018년)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로 파악하였다. 편의상 각 단계를 순서대로 태동기, 조성기, 정착기로 부르기로 한다. 태동기에는 8년간 45편, 조성기에는 25년간 161편, 정착기에는 9년간 226편이 게재되었다. 정착기의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2017년부터 연간 2회 발간했기 때문에 논문 편수가 크게 늘어났다. 발간현황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항도부산 발간현황 및 게재편수

연도	발간호	게재 편수	연도	발간호	게재 편수	연도	발간호	게재 편수
1962	1	9	2000	16	8	2014	30	6
1963	2	9	2001	17	8	2015	31	10
	3	5						
1964	4	9	2002	18	8	2016	32	8
1966	5	7	2003	19	8	2017	33	11
							34	8
1967	6	8	2004	20	7	2018	35	11
							36	11
1969	7	9	2005	21	7	2019	37	15
							38	14
1991	8	7	2006	22	8	2020	39	14
							40	18
1992	9	6	2007	23	13	2021	41	16
							42	15
1993	10	8	2008	24	8	2022	43	16
							44	13
1994	11	6	2009	25	11	2023	45	10
							46	9
1995	12	8	2010	26	11	2024	47	12
							48	12
1996	13	7	2011	27	8	2025	49	13
1997	14	9	2012	28	7	계	49	478
1998	15	8	2013	29	9			

2. 연구자 특성

1) 연구비 지원 여부와 연구자 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22편으로 4.6%였고,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이 대부분으로 95.4%인 456편이었다. 연구인원은 단독연구가 87.2%인 417편으로 가장 많았다. 5.2%인 25편이 2인 공저,

0.4%인 2편이 3인 공저였고, 0.2%인 1편만이 4인 공저였다. 이는 학문의 분야가 역사학이 많았고, 역사연구 분야는 학문 특성상 단독연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결측치는 연구논문 이외에 사료 및 역사적인 자료로서 저자정보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

〈표 4〉 연구비 지원여부와 연구자 수

단위: 편(%)

연구비 지원여부	지원		비지원		전체
	22(4.6)		456(95.4)		478(100)
연구자 수	단독	2인 공저	3인 공저	4인 공저	전체
	417(87.2)	25(5.2)	2(0.4)	1(0.2)	445(93.1)

2) 연구자 소속과 직책

연구자 소속은 대학의 교수가 181명, 56.7%로 가장 많았다. 초빙과 겸임을 포함한 강사는 45명, 14.1%로 나타났다. 대학 소속의 연구소의 연구원과 박사과정 및 수료생 18명(5.6%), 12명(3.8%)으로 각각 그 뒤를 따랐다. 역사 분야가 많은 관계로 관련 기관의 연구원이나 기관 직원들도 있었는데, 박물관, 기념관, 역사관, 문화재청 등 공공기관 등의 학예사, 조사관,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기타에는 상기 기관 외에도 역사재단,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등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저자인 경우가 포함되었다. 또한 언론사의 논설위원, 고등학교의 교사 등도 포함되어 부산의 지역학 연구자들의 소속과 지위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연구자 소속 및 직책

단위: 명(%)

지위 / 소속	(명예)교수	(초빙·겸임)강사	연구(위)원	기관장 및 직원	박사과정 및 수료	기타	전체
대학	181(56.7)	45(14.1)	18(5.6)	4(1.3)	12(3.8)	2(0.6)	262(82.1)
연구소(원)	0(0.0)	0(0.0)	10(3.1)	2(0.6)	1(0.3)	0(0.0)	13(4.1)
박물/기념/역사관	0(0.0)	0(0.0)	5(1.6)	9(2.8)	0(0.0)	0(0.0)	14(4.4)
문화재청	0(0.0)	0(0.0)	0(0.0)	0(0.0)	0(0.0)	9(2.8)	9(2.8)
기타	2(0.6)	0(0.0)	8(2.5)	7(2.2)	0(0.0)	4(1.3)	21(6.6)
전체	183(57.4)	45(14.1)	41(12.9)	22(6.9)	13(4.1)	15(4.7)	319(100)

3) 연구자의 지역기반 변화

연구자 소속 지역은 앞서 언급한 연구기간(태동기, 조성기, 정착기)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확인결과 부산에 지역기반을 둔 연구자가 303명으로 7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산 외 지역은 28.5%인 121명이었는데, 태동기에는 전혀 없었던 부산 외 지역 연구자가 조성기에는 9.9%인 42

명, 정착기에는 18.6%인 79명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서도 부산 지역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 외 지역별 수치를 살펴보면 서울이 29(6.8%), 경상지역이 22(5.2%), 대전이 16(3.8%), 충청 및 국외(주로 일본)지역이 각각 11(2.6%)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경기지역이나 울산, 광주, 전라, 강원지역은 10명 이하의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향후 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세한 사항은 〈표 6〉과 같다.

〈표 6〉 연구자 소속 지역

단위: 명(%)

연구기간 \ 연구자 지역	부산	부산 외 지역	전체
1962-1969(태동기)	5(1.2)	0(0.0)	5(1.2)
1991-2015(조성기)	152(35.8)	42(9.9)	194(45.8)
2016-2025(정착기)	146(34.4)	79(18.6)	225(53.1)
전체	303(71.5)	121(28.5)	424(100)

3. 연구내용

1) 연구분야: 대분류

항도부산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분야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학문분류를 활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역사 등 특정 학문분야에 치우져 있어서 통상적인 분류법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재논문의 면면을 살펴본 후 귀납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결과 역사학이 358편이었고, 74.9%를 차지하고 있었다. 1962년 항도부산이 발간되었을 때부터 논문 외에도 부산지역 관련 과거 문헌 등 사료들이 수록되었는데, 이 자료들도 56건으로 11.7%에 해당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후반 부산의 각 분야 연구들에 대한 연구현황 및 메타연구들도 26편으로 5.4%를 차지했다. 이후로 행정학과 문화예술분야가 16편(3.3%)과 12편(2.5%)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7〉과 같다.

〈표 7〉 기간별 연구분야

단위: 편(%)

기간 \ 분야	역사	행정	문화예술	현황자료	자료 (사료)	연구현황	기타	전체
1962-1969 (태동기)	15 (3.1)	0 (0.0)	0 (0.0)	1 (0.2)	31 (6.5)	7 (1.5)	2 (0.4)	56 (11.7)
1991-2015 (조성기)	142 (29.7)	3 (0.6)	6 (1.3)	3 (0.6)	21 (4.4)	19 (4.0)	2 (0.4)	196 (41.)
2016-2025 (정착기)	201 (42.1)	13 (2.7)	6 (1.3)	2 (0.4)	4 (0.8)	0 (0.0)	0 (0.0)	226 (47.3)
전체	358 (74.9)	16 (3.3)	12 (2.5)	6 (1.3)	56 (11.7)	26 (5.4)	4 (0.8)	478 (100)

2) 역사학: 소분류

대분류 결과 74.9%를 차지하고 있던 역사학 논문 358편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았다. 역사학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문화예술사 분야로 69편, 19.3%에 이른다. 문화예술사에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예술로 그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대외교류사가 46편으로 12.8%를 차지했는데, 주로 왜관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교류를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체제나 재정 및 수취체제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행정사가 45편으로 12.6%를 차지한다. 부산지역 기업의 흥망이나 산업발전 과정에 대한 경제사도 37편, 10.3%로 꽤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일반 민(民)의 삶의 모습에 대한 생활사, 지역 개발과정 특히 부산항 개발과정이 다수 포함된 건축토목사, 주로 불교와 관련된 종교사(기독교 1편), 부산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또는 부산지역 출신 인물의 생애와 관련된 인물사가 그 뒤를 차례로 잇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언론문학, 항일독립운동, 사회민주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역사학 분야 소분류

단위: 편(%)

소분류 \ 게재기간	1962-1969 (태동기)	1991-2015 (조성기)	2016-2025 (정착기)	전체
언론문학사	1(0.3)	8(2.2)	4(1.1)	13(3.6)
경제사	4(1.1)	16(4.4)	17(4.7)	37(10.3)
정치행정사	1(0.3)	24(6.6)	20(5.6)	45(12.6)
종교사	0(0.0)	9(2.5)	13(3.6)	22(6.1)
독립운동사	0(0.0)	4(1.1)	9(2.5)	13(3.6)
생활사	0(0.0)	14(3.9)	13(3.6)	27(7.5)
대외교류사	2(0.6)	17(4.7)	27(7.5)	46(12.8)
문화예술사	1(0.3)	25(7.0)	43(12.0)	69(19.3)
의료교육사	2(0.6)	1(0.3)	10(2.8)	13(3.6)
건축토목사	1(0.3)	12(3.4)	10(2.8)	23(6.4)
전쟁사	2(0.6)	4(1.1)	10(2.8)	16(4.5)
사회·민주화운동사	1(0.3)	4(1.1)	7(2.0)	12(3.4)
인물사	0(0.0)	3(0.8)	17(4.7)	20(5.6)
기타	0(0.0)	1(0.3)	1(0.3)	2(0.6)
전체	15(4.2)	142(39.7)	201(56.1)	358(100)

3) 연구의 시간적 범위

게재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시간적 범위는 역사적 순서대로 선사시대, 삼한/독로/가야,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 임진왜란기, 조선후기, 개항기/개화기/근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광복 후, 한국전쟁기, 현대로 구분했다. 시간적 범위를 시대별로 비교적 세분화한 이유는 우리 역

사에서 사건이 되는 시기가 곧 변곡점으로서 연구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짧은 시기임에도 한국전쟁기를 따로 구분한 이유는 이 시기 피란수도로서 부산의 역할을 연구한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는 '현대'로서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이다. 총 128편이 게재되었고 전체의 28.1%를 차지한다. 게재시기별로는 조성기에 비해 정착기에 많은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로서 93편, 20.4%가 게재되었고, 그 수는 조성기와 정착기가 유사하게 연구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후기가 68편 14.9%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신라(32편, 7%), 개항기(29편, 6.4%), 한국전쟁기(27편, 5.9%), 고려(19편, 4.2%), 임진왜란(13편, 2.9%), 선사시대(12편, 2.6%), 광복 후(12편, 2.6%), 선사시대(12편, 2.6%)가 10편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선전기 9편(2%), 삼한/독로/가야시대 8편(1.8%), 대한제국시기에도 6편(1.3%)의 연구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부산의 경우 신석기, 청동기, 삼한 및 신라나 고려 등 문헌이 거의 없는 시기에도 유물, 유적이 남아있어서 전 시대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산이 때로는 중심지로, 때로는 변방으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된다. 자세한 수치는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 연구의 시간적 범위

단위: 편(%)

게재기간 / 시대구분	1962-1969 (태동기)	1991-2015 (조성기)	2016-2025 (정착기)	전체
선사시대	0(0.0)	11(2.4)	1(0.2)	12(2.6)
삼한/독로/가야	0(0.0)	4(0.9)	4(0.9)	8(1.8)
신라	0(0.0)	14(3.1)	18(3.9)	32(7.0)
고려	0(0.0)	7(1.5)	12(2.6)	19(4.2)
조선전기	3(0.7)	4(0.9)	2(0.4)	9(2.0)
임진왜란기	1(0.2)	7(1.5)	5(1.1)	13(2.9)
조선후기	3(0.7)	32(7.0)	33(7.2)	68(14.9)
개항기/개화기/근대	14(3.1)	7(1.5)	8(1.8)	29(6.4)
대한제국	1(0.2)	1(0.2)	4(0.9)	6(1.3)
일제강점기	11(2.4)	41(7.0)	41(9.0)	93(20.4)
광복 후	0(0.0)	9(2.0)	3(0.7)	12(2.6)
한국전쟁시기	0(0.0)	9(2.0)	18(3.9)	27(5.9)
현대	2(0.4)	49(10.7)	77(16.9)	128(28.1)
전체	35(7.7)	195(42.8)	226(49.6)	456(100)

4) 연구의 장소적 범위

게재논문들의 부산 내에서의 장소적 범위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연구들을 탐색하면서 귀납적으로 추려낸 부산 역내 연구장소는 기장, 동래, 불교 유적으로서의 만덕사와 범어사, 고대의 고분군이 있는 연산동과 복천동, 왜관이 있었던 초량, 적기만 등 항만구역, 영도와 기타 지역이었다. 먼저

연구대상 지역이 단지 '부산'으로 언급된 연구는 부산 전지역으로 설정했는데, 289편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산 전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지역은 동래인데, 43편 9%로 나타났다. 과거 부산의 명칭이 동래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도가 높게 다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부산항이 43편 9%로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 부산항은 일제강점기 항만건설 및 매립이 시작될 때부터 주요한 연구대상 지역으로 남항과 북항 등 모든 항만구역을 포함했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가 해당되었다.

기장지역은 18편 3.8%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라, 고려, 조선, 개항기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까지 시대별로도 연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불교사, 생활사, 인물사, 의료사 등 그 분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대를 조금 달리하지만 불교유적으로 묶은 만덕/범어사 지역은 17편 3.6%로 나타났고, 고대 고분군으로 묶은 연산/복천동은 15편 3.1%로 나타나고 있다. 신석기 패총과 고려 이전 목장이 있었고, 절영도 조차지 문제가 있었던 영도도 15편 3.1%가 연구되었다. 대외(왜)교류를 상징하는 초량은 12편, 2.5%가 수록되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나왔던 지역들은 기타로 분류했는데, 여기에는 대저, 가덕, 감천, 부전, 수영, 금정, 사상, 해운대, 부산진 등과 함께 승학산, 용두산, 봉래산, 동천, 낙동강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이례적으로 경남 김해나 마산, 일본 쓰시마 등 부산 외 인접지역이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주요 수치는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연구의 장소적 범위

단위: 편(%)

게재기간 / 지역분류	1962-1969 (태동기)	1991-2015 (조성기)	2016-2025 (정착기)	전체
부산 전지역	40(8.4)	123(25.8)	126(26.4)	289(60.6)
기장	0(0.0)	5(1.0)	13(2.7)	18(3.8)
동래	2(0.4)	21(4.4)	20(4.2)	43(9.0)
만덕(기비)사/범어사	0(0.0)	8(1.7)	9(1.9)	17(3.6)
연산동/복천동	0(0.0)	3(0.6)	12(2.5)	15(3.1)
초량	0(0.0)	3(0.6)	9(1.9)	12(2.5)
부산항	7(1.5)	19(4.0)	17(3.6)	43(9.0)
영도	2(0.4)	5(1.0)	8(1.7)	15(3.1)
기타	4(0.8)	9(1.9)	12(2.5)	25(5.2)
전체	55(11.5)	196(41.1)	226(47.4)	477(100)

Ⅳ. 연구경향을 통해 본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

1. 해양 관련 주제어의 귀납적 탐색

부산과 부산항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항도부산」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에서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양관련 연구들을 추려내었다. 이때 과거 초록과 주제어가 수록되지 않은 논문은 제목과 목차를 중심으로 보완하였다. 항도부산 발간 전체 기간의 총 게재논문(사료 포함) 478편 중에서 해양과 관련된 논문은 총 59편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용분석을 위해 해양관련 논문 59편을 유사한 주제로 재분류한 결과 해양관련 키워드는 총 7개로 나타났다. 첫째, 해양행정 분야로 해양수도, 항만·해항·물류도시 정책, 해양경찰 관련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해양관광 분야로 해양관광콘텐츠 및 해양관광, 연안크루즈 등이 해당되었다. 셋째, 해양문화 분야는 구비문학, 설화, 소설, 가사, 시구 속의 바다와 부두, 바다미술, 해양제사나 해양을 통한 교류 등이 관련되었다. 넷째, 해양산업 분야에는 해운업, 조선업, 수산업을 포함한다. 다섯째, 해양과 전쟁 분야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의 해전, 일제 침략전쟁의 군항과 군함, 전쟁교통망과 일본인 귀환 등이 해당되었다. 여섯째, 무역과 경제는 각 시대별로 부산항을 통한 무역을 다루고 있다. 일곱째, 부산항의 개발과 개항 분야로서 개항의 역사적 의미, 각 항만의 매축, 매립, 개발과 이에 대한 기록들, 각 항만에 대한 연구와 비교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11〉에 나타나 있다.

〈표 11〉 해양과 관련된 주제어의 탐색

주제어	논문내용
①해양행정	해양수도 항만·해항·물류도시 해양경찰(해상안전·치안·보존)
②해양관광	해양관광콘텐츠 항구·해양관광/연안크루즈/북항
③해양문화	(개항기)해역(하이쿠 투어리즘) 해양도시(전승) 바다(설화) 바다도깨비(설화) (강점기)부두(만세전) (전쟁)바다(미술) (가야신라)해양제사 (광포전설)해안도서지역 (통일신라)부산항(일본교류) (신라)해양교류·해신제사 (임란기)전란가사~부산앞바다의 평화
④해양산업	(일제말)전시해운 (일제하)해운업 (일제하)조선업 (개항이후)수산업
⑤해양과 전쟁	항만(전쟁교통망) 군항(일제 대륙진출) (왜란)부산포해전 (전쟁)조선산업 (정유재란)부산해전 (임진왜란)다대포부산포해전 (해방후)부산항일본인귀환
⑥시기별 무역과 경제	(개항기)부산항시장권·무역 (일제강점기)부산항무역 (한국전쟁기)부산항무역 (60-70년대)부산항무역 (80-90년대)부산항무역
⑦부산항 개발 및 개항	(선초)부산포개항 개항(역사적 의미) (개항)부산항기록 (적기만)매축 (강점기)항만매축 (강점기)부산항매축 (일제말)적기만 추가매축 (한국전쟁)항만개발·부두노동·해운조선 (대한제국)북항매축 부산지역기념비현황(부산진매축기념비/새마당매축비/영도대평동매립기념비/자갈치매축기념비) (일제말)적기만매립 (전후)항만개발 해안도시개발사례·항만개발 부산개항연구(상.중.하) (부산개항후)각항연구 부산각항비교 부산남항매축자료 부산축항지 (강점기)연안매립

1) 게재 기간별 해양 분야 연구

〈표 12〉에 논문 발간 시기별로 해양관련 논문을 정리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태동기에는 부산항에 대한 개발과 개항과 관련된 연구만이 7편(11.9%)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산개항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 개항 후 각각의 항만에 대한 비교적 연구, 매축자료 등이 해당된다. 조성기에는 해양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해진다. 해양행정 1편, 해양문화 3편, 해양산업 4편, 전쟁과 관련된 연구가 3편, 부산항에서 이루어진 무역과 경제에 대한 기록과 연구들이 5편 발표되었다. 또한 부산항

개발과 개항 연구들은 12편으로 더욱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착기에는 이 분야들과 아울러 해양관광 분야가 2편 새롭게 등장했다. 해양관광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는 분야로 바다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산항과 관련된 개발과 개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는 조성기나 태동기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12〉 논문게재 기간별 해양분야 연구

단위: 편(%)

주제어 / 기간	해양행정	해양관광	해양 문화	해양산업	해양과 전쟁	무역과 경제	부산항 개발과 개항	전체
1962-1969 (태동기)	0(0.0)	0(0.0)	0(0.0)	0(0.0)	0(0.0)	0(0.0)	7(11.9)	7(11.9)
1991-2015 (조성기)	1(1.7)	0(0.0)	3(5.1)	4(6.8)	3(5.1)	5(8.5)	12(20.3)	28(47.5)
2016-2025 (정착기)	2(3.4)	2(3.4)	8(13.6)	1(1.7)	4(6.8)	4(6.8)	3(5.1)	24(40.7)
전체	3(5.1)	2(3.4)	11(18.6)	5(8.5)	7(11.9)	9(15.3)	22(37.5)	59(100)

2)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해양분야 연구

시간적 범위별로 해양관련 주제어를 활용한 논문 현황은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행정은 3편 모두 현대시기에 해당된다. 해양관광 또한 2편 모두 현대시기에 해당된다. 해양문화는 시기별로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전래되어 온 바다관련 설화, 민담, 전설, 해신제사 등 무형문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과 일제강점기 일본문학이나 우리나라 문학에 비친 부두나 해역의 모습, 바다와 관련된 미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산업은 일제강점기의 해운, 조선, 수산업 그리고 한국전쟁기의 조선산업이 해당된다. 전쟁에 관해서는 왜란시기의 해전 및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부산항을 활용한 무역과 부산항 개발 모두 강점기 일제에 의해 시작되었고, 주도했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들을 연구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역사에서 해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대부분 일본과 관련이 있는 주제였는데, 향후 우리나라가 주체성을 가진 관련 사료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3〉 시간적 범위별 해양관련 주제어

단위: 편(%)

주제어 / 시간범위	해양 행정	해양 관광	해양 문화	해양 산업	해양과 전쟁	무역과 경제	부산항 개발과 개항	전체
삼한독로가야	0(0.0)	0(0.0)	1(1.7)	0(0.0)	0(0.0)	0(0.0)	0(0.0)	1(1.7)
신라	0(0.0)	0(0.0)	2(3.4)	0(0.0)	0(0.0)	0(0.0)	0(0.0)	2(3.4)
조선전기	0(0.0)	0(0.0)	0(0.0)	0(0.0)	0(0.0)	0(0.0)	1(1.7)	1(1.7)

임진왜란	0(0.0)	0(0.0)	1(1.7)	0(0.0)	4(6.8)	0(0.0)	0(0.0)	5(8.5)
개항기	0(0.0)	0(0.0)	1(1.7)	1(1.7)	0(0.0)	2(3.4)	6(10.2)	10(16.9)
대한제국	0(0.0)	0(0.0)	0(0.0)	0(0.0)	0(0.0)	0(0.0)	1(1.7)	1(1.7)
일제강점기	0(0.0)	0(0.0)	1(1.7)	3(5.1)	2(3.4)	4(6.8)	9(15.3)	19(32.2)
광복 후	0(0.0)	0(0.0)	0(0.0)	0(0.0)	1(1.7)	0(0.0)	0(0.0)	1(1.7)
한국전쟁기	0(0.0)	0(0.0)	1(1.7)	1(1.7)	0(0.0)	1(1.7)	2(3.4)	5(8.5)
현대	3(5.1)	2(3.4)	4(6.8)	0(0.0)	0(0.0)	2(3.4)	3(5.1)	14(23.7)
전체	3(5.1)	2(3.4)	11(18.6)	5(8.5)	7(11.9)	9(15.3)	22(37.3)	59(100)

2.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성 추론

부산과 부산항과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해양과 관련된 주제어 중에서 부산항 개항 및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논문 주제어가 부산과 부산항과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부산항과 관련하여 「항도부산」에 게재된 연구 및 자료 22편 중에서 매축과 관련된 사료 3편을 제외한 19편에 대해 연구논문들의 세부목차와 초록을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 빅데이터 분석은 크게 내용분석과 구조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내용분석에 해당되고, 네트워크(network) 분석은 구조분석에 해당된다(정지원·김정석, 2022: 77). 본 연구는 두 분석 기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키워드 중 부산항을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들의 제목과 세부목차, 초록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했다. 의미있는 형태소만을 남기고 중복 및 유사한 단어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분석을 준비했다. R 4.5.1을 활용하여 명사화한 단어들 중에서 중복 및 유사군으로 묶은 주요 단어는 다음과 같다. “개항”과 “부산개항”을 묶었고, “도시”에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발전”을 포함했다. “항만”으로는 “항만개발”, “항만시설”, “부두시설”을, “강화도조약”에는 “조일수호조규”,“강화부교섭”, “조규”를 포함했고, “동남해”와 “동남해지역”을 하나로 보았다.

둘째, 관련 핵심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여 시각화했다. 또한 논문 발간시기별로 핵심어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워드클라우드는 단어의 빈도, 즉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의미있는 관계를 찾을 수 없고, 핵심어의 종류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본다.

셋째, 핵심어들 중에서 두 단어 간의 연결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동시출현(co-occurrence) 단어의 빈도(frequency)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했다. 이때 빈도는 많은 논문에 중복되어 나타났기에 단어의 중요도가 과장되어 있을 수 있어 문제가 있다(이태화, 2022: 12). 따라서 동시출현 단어의 빈도가 높다고 해서 양 단어의 연결성이 밀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들 간의 출현 양상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핵심어들의 중요도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시했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키워드의 중심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꼽는다(정지원·김정석, 2022: 14-15).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다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연결중심성, 직접 연결되지 않은 노드 간 관계를 중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개 중심성을 활용한다. 한편 네트워크 내에서 단어들 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유벡터값(eigen)을 활용했으며, 또한 이들 중심성 수치를 기반으로 한 군집화(group)를 통해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추론했다.

1) 부산항과 관련된 핵심어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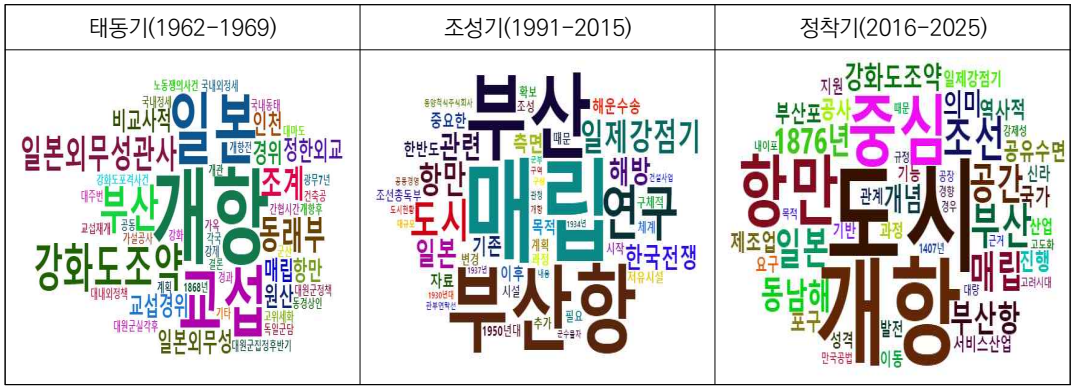
부산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상위단어는 “매립”, “부산”, “도시”, “개항”, “부산항”, “항만”, “일본”, “중심”, “연구”, “일제강점기”, “강화도조약”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핵심어에 대한 상위 100개 단어를 대상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핵심어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2) 발간시기별 핵심어 변화

앞서 항도부산 발간 시기를 태동기(1962-1969), 조성기(1991-2015), 정착기(2016-2025)로 나누었는데, 이 기간에 따라 상위 50개의 핵심어는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태동기에는 “개항”, “일본”, “강화도조약”, “교섭” 등 부산항이 외세 특히 일본에 의해 개항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조성기에는 “매립”과 “부산”, “부산항” 등 항만이 개발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립과 매축 과정을 논의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정착기에는 “도시”와 “개항”, “항만” 등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의 의미의 핵심어들이 논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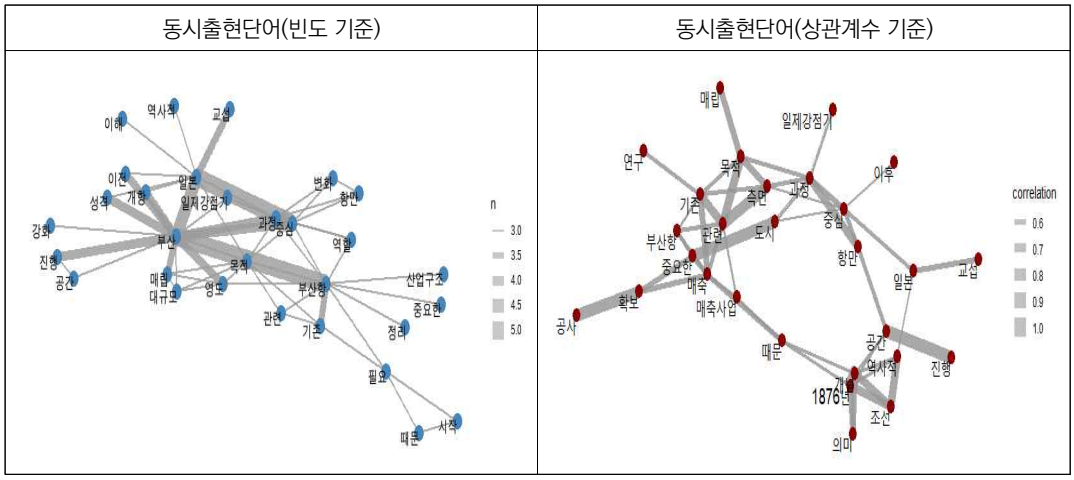
〈그림 3〉 발간시기별 핵심어 변화



3) 핵심어 간의 연결성 분석

단어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시출현 단어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를 시각화한 것을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결성은 선이 굵을수록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왼쪽의 빈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과 “부산항”이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산”과 “부산항”은 핵심어로서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많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시각화한 오른쪽 그림에는 부산항과 부산의 연결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빈도는 단순히 양 단어가 동시에 출현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상관계수는 이들의 변화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핵심어 간의 연결성 분석결과



4) 전체 핵심어 간의 네트워크 분석

핵심어들 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했다. 〈표 14〉의 상위 10개에 자리한 핵심어를 살펴보면, “부산”, “부산항”, “일본”, “목적”, “과정”, “중심”, “영도”, “기존”, “필요”, “매립” 등의 단어가 나타난다.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 흐름의 ‘다리’ 역할을 하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에서는 “부산항”, “부산”, “일본”, “필요”, “목적”, “과정”, “중심”, “기존”, “영도”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 있는 핵심어를 파악하고자 고유벡터(eigen)값이 높은 단어를 살펴보면 “부산”, “목적”, “부산항”, “과정”, “중심”, “일본”, “영도”, “매립”, “대규모”, “기존”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살펴본 결과 논문의 형식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목적”, “과정”, “중심”, “기존”, “필요” 등을 빼면, 논문의 내용적 요소인 “부산”, “부산항”, “일본”, “영도”, “매립” 등의 단어가 부산항 관련 논문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라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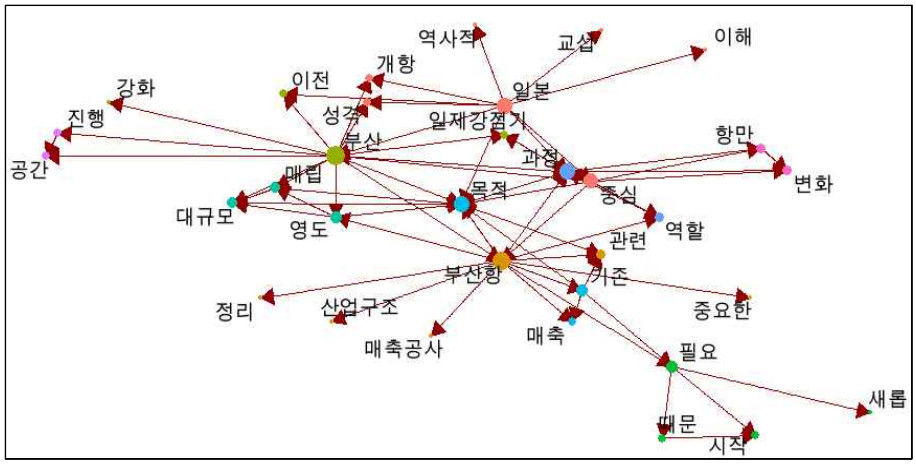
그런데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성을 추론하기 위해 단어들 사이의 군집(group)을 살펴보면 1그룹에는 “일본”, “중심”, “교섭” “항만” 등이 있고, “부산항”과 “매축”, “산업구조”는 2그룹에, “부산”이나 “개항”은 3그룹에 속해 있어서 그 성격적 군집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화는 상기 중심성 지표(degree, betweenness, eigen)들을 기반으로 성격의 유사성을 묶은 것으로 서로 다른 군집으로 구분되면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 핵심어들이 부산항 연구에 있어 각자 중요한 단어인 것은 맞지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욱 정밀하게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분석한 수치들을 상위 20개까지 나타내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전체 핵심어 간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no.	name	degree	name	betweenness	name	eigen	name	group
1	부산	30	부산항	0.479752	부산	1	일본	1
2	부산항	28	부산	0.372629	목적	0.895569	중심	1
3	일본	20	일본	0.206048	부산항	0.862505	교섭	1
4	목적	20	필요	0.179435	과정	0.780432	이전	1
5	과정	18	목적	0.120008	중심	0.746786	항만	1
6	중심	16	과정	0.109754	일본	0.6541	이해	1
7	영도	10	중심	0.085561	영도	0.529403	역사적	1
8	기존	10	기존	0.027218	매립	0.418706	부산항	2
9	필요	10	영도	0.012337	대규모	0.418706	매축공사	2
10	매립	8	교섭	0	기존	0.359851	정리	2
11	대규모	8	이전	0	역할	0.351865	산업구조	2
12	역할	6	성격	0	관련	0.311845	매축	2
13	항만	6	개항	0	변화	0.263696	중요한	2
14	변화	6	매립	0	항만	0.263696	부산	3
15	관련	6	진행	0	일제강점기	0.262153	성격	3
16	이전	4	역할	0	이전	0.243551	개항	3
17	성격	4	항만	0	개항	0.243551	강화	3
18	개항	4	변화	0	성격	0.243551	과정	4
19	진행	4	이해	0	필요	0.194055	역할	4
20	일제강점기	4	역사적	0	매축	0.179981	변화	4

또한 핵심어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은 아래의 〈그림 5〉이다. 각 핵심어에 접한 원의 크기는 중요도 또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화살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향하는 특정 방향을 가리킨다. 또한 원의 색깔은 유사한 성격의 군집을 나타낸다.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는 단방향으로, "부산"에서 "부산항"으로 화살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이를 매개하는 "목적"이 있다. 「항도부산」의 부산항 연구들은 "부산", "부산항", "일본"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핵심어는 모두 다른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그 밀접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살표 방향을 보면, 대부분 핵심어에서 다른 주제어로 뻗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결과의 시각화



보다 질적인 분석을 위해 항만 주제어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부산항 개발 및 개항 연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부산항의 개항 과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개항은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문을 여는 '제도'의 관점이었다. 이를 위해 당시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의환, 1963;, 김의환, 1964; 김의환, 1966; 김용욱, 1966; 김용욱, 1967; 전성현, 2020; 한정훈, 2021). 둘째는 실제 부두, 방파제, 매립, 매축 등 부산항의 '시설' 개발로서 항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자체로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부산항의 역사를 밝혀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노기영, 2006; 차철욱, 2006; 김승, 2013; 배석만, 2012; 배석만; 2013; 송혜영, 2025). 셋째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부산항의 개발역사를 분석하고 있다. 이때는 도심지와 시가지, 철도 등 부산지역의 다른 부분과 연계하여 그 발전과정의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김용욱, 1963; 김성곤, 1991; 김흥관, 1998; 송계의, 2000; 차철욱, 2007).

그런데 게재 연구논문들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접근방식의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부산항은 사실은 일제의 부산항 또는 한국의 부산항으로 기능했지, 부산의 부산항으로 기능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부산항이 '부산의 부산항'으로서 밀접한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시각인 부산이라는 도시의 성장과정과 함께 연계된 부산항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배석만(2014)이 언급한 것처럼 부산항에서 파급된 부두노동자의 삶이나 부산시민의 삶과 관련된 생활사, 도시 및 지역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산의 정체성은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짐작건대,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밀접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실제 항만과 도시의 관계변화를 살펴보면, 1900년대 초반까지 항만의 물류 집결기능 및 교류기능이 인구집중과 도시형성의 기반이 되고, 항만 기반의 도시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1900년대 중반 이후 항만이 도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면서 항만 기반 도시들로부터 항만을 분리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컨테이너 등 기술적 요인에 의한 외생적 효과는 물동량처리의 효율을 가져왔고, 물동량의 집적 경향은 결국 항만과 배후지를 연결하는 화물운송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등 항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항만 주변 도시환경은 낙후되고 거주민에게는 심리적으로 항만이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산에서도 부산항의 성장은 항만의 성장으로 생긴 도시문제들로 인해 부산항을 점점 도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최진이, 2021: 507-508). 그럼에도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소결은 이 연구의 대상인 「항도부산」이라는 학술지에 국한된 연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하며, 연구대상을 보다 많은 학술지로 확대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부산의 도시, 지역, 시민과 연계된 부산항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196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항도부산」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해양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논문들을 탐색한 뒤, 항만 관련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모형은 일반사항으로서 발행권호와 발행연도, 연구자 특성으로서 연구비 지원여부, 연구자 수, 연구자 소속, 연구자 직책, 연구자의 지역성을 꼽았다. 이는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연구내용 부분으로서 연구분야의 대분류와 소분류, 연구대상으로서 시간적 범위와 장소적 범위를 활용하였다. 세부적인 기준은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에 맞추어 적용하였다.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항 및 연구자특성 분석결과, 항도부산은 2025년 현재 49호 478편의 연구논문 및 사료를 게재하고 있다. 연구비는 지원받지 않은 논문이 95.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인원은 단독연구가 87.2%로 가장 높았다. 연구자는 대학의 교수가 56.7%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술지 발행기관을 편의상 3단계로 구분했는데, 1962년부터 1969년까지 태동기,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기, 2016년부터 2025년까지를

정착기로 구분했다. 연구자들의 연구기반 지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연구자들이 71.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동기보다 조성기에, 조성기보다 정착기에 더 많은 부산 외 지역의 연구자들이 논문게재를 하였다.

둘째, 연구내용 분석결과 연구분야는 역사학이 74.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료(사료)를 제외하면 연구현황(메타연구), 행정, 문화예술 등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역사학 논문을 대상으로 소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문화예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외교류사, 정치행정사, 경제사, 생활사, 건축토목사, 종교사, 인물사, 언론문학사, 의료교육사, 독립운동사, 사회·민주화운동사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서 시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현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일제강점기, 조선후기가 높은 수치로 따르고 있었다. 신라, 한국전쟁, 고려, 개항기, 대한제국과 삼한/독로/가야, 광복 후, 선사시대가 많지는 않지만 고르게 그 뒤를 잇고 있다. 연구대상의 장소적 범위로서 부산 지역 내 소지역에 대해 탐색한 결과 전 지역에 이어 부산항, 동래, 기장, 연산동/복천동, 만덕사/범어사, 초량, 영도가 그 뒤를 따른다. 항도부산의 게재논문은 역사학 안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해양의 의미를 포함한 주제어를 탐색한 결과 관련된 논문은 총 59편으로 전체의 12.3%로 나타났다. 귀납적으로 탐색한 해양관련 주제어는 총 7개였는데, 해양행정, 해양관광,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과 전쟁, 시기별 무역과 경제, 부산항의 개발과 개항이었다. 발행시기 별로 해양분야 연구를 파악한 결과 큰 차이는 없지만 조성기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제별로는 부산항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고, 해양문화, 무역과 경제, 해양과 전쟁, 해양산업, 해양행정, 해양관광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주제어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이고, 그 뒤를 현대, 개항기, 한국전쟁과 임진왜란 시기가 잇고 있다.

넷째,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해양 키워드 연구 중에서 부산항의 개발과 개항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결과 “부산”, “부산항”, “일본” 세 단어는 부산항 연구에서 중요한 핵심어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부산”과 “부산항”의 밀접한 관련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련 연구들은 부산항의 관문을 여는 ‘개항’과 접안시설의 건설을 의미하는 ‘개발’, 부산의 ‘도시성장’의 일부분으로서 연결된 항만으로 구분되었다.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접근시각의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예컨대 부산항과 관련된 부두노동자, 시민의 삶 등 생활사, 지역사와 도시사 등이 보다 많은 연구성과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부산과 부산항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항도부산」에 게재된 연구논문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나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의 논문을 활용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항도부산」의 연구는 ‘역사 분야’를 중점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항도부산」이라는 학술지의 게재 연구논문들의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학에서의 해양,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그런데 도시와 도시의 상징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접근방식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한계점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써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의 경

우 연구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측정지표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항도부산」 연구논문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은 미약하게나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지선. (2019).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165-207.

권경득·이광원·강혜정. (2021). 한국 다문화 연구의 경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4): 395-431.

권정현. (2023).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16(1): 5-30.

김상구. (2005).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 〈지방정부연구〉에 게재된 논문(1997-2003)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1(1): 291-317.

김성곤. (1991). 21세기를 지향한 제2의 개항. 「항도부산」 8: 277-301.

김성국·이태휘. (2020).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한국 대통령의 해양관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6(3): 36-54.

김순석.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기고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7: 9-36.

김 승. (2013).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29: 1-33.

김용욱. (1963). 부산 축항지. 「항도부산」 2: 121-292.

김용욱. (1966). 부산개항의 비교사적 의미 –주로 일본단독조계를 중심으로 하여-. 「항도부산」 5: 277-313.

김용욱. (1967). 부산 개항 후 한국 각항에 관한 연구 -주로 일본조계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6: 13-167.

김의환. (1963). 부산개항의 연구(상). 「항도부산」 3: 7-101.

김의환. (1964). 부산개항의 연구(중). 「항도부산」 4: 7-158.

김의환. (1966). 부산개항의 연구(하). 「항도부산」 5: 7-271.

김정숙·유은지·한승혜. (2020). 지방의회 연구 경향 비교·분석: 국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1): 171-196.

김창수·하민호·서영준. (2022).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8(2): 109-121.

김흥관. (1998).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개발과 그 성격 -도시계획, 항만개발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15: 270-309.

노기영. (2006). 일제말 부산 적기만의 매립과 임항철도 건설사업. 「항도부산」 22: 314-350.

배석만. (2012). 1930년대 부산 적기만 매축연구.「항도부산」28: 52-97.
배석만. (2013). 일제말 적기만 추가매축 연구.「항도부산」29: 65-98.
배석만. (2014). 한국전쟁 전후 부산항 연구의 성과와 과제.「항도부산」30: 1-3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s://bssisa.com/, 검색일: 2025.7.9.)
성은혜. (2024). 북항재개발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에 관한 연구.「융합사회와 공공정책」18(2): 83-124.
송계의. (2000). 부산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항만개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항도부산」16: 144-218.
송혜영. (2025). 일제강점기 부산 연안의 매립과 활용 -관련 공문서 기록을 중심으로-.「항도부산」49: 283-333.
이태화. (202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도시행정학보」연구경향 분석.「도시행정학보」35(1): 1-22.
전성현. (2020). 1876년 '개항'의 개념적 의미와 역사적 성격.「항도부산」39: 241-280.
정지원·김정석.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적 이해와 실천적 함의: 텍스트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6(2): 65-97.
차철욱. (2006). 대한제국기 부산 북항 매축관련 자료의 내용과 성격.「항도부산」22: 224-311.
차철욱. (2007). 일제강점기 부산도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항도부산」23: 396-417.
최진이. (2020). 항만과 도시의 관계에 관한 연구.「인문사회21」11(2): 521-536.
최진이. (2021). 항만과 도시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부산항과 부산의 연계성 강화 연구.「항도부산」41: 501-530.
한정훈. (2021).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해양사와 중심포구의 이동 -조선 초기 부산포 개항과 관련하여-.「항도부산」42: 37-71.

성은혜(成殷慧):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해양환경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현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해양행정, 거버넌스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관련 정책 비교분석(2022),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에 관한 연구(2024), 항만개발 입지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양항을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eunedat@daum.net)

김상구(金相九): 부산대학교에서 2002년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협상방법의 결정요인과 결합유형에 관한 연구: 환경기초시설의 갈등해소를 중심으로), 현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인사행정, 해양행정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해기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공공재인가? 사적재인가?(2024), 항만관련 권한의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2023) 등 다수의 논문이 있고, 현재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7대 학회장을 맡고 있다.(ksg1515@kmou.ac.kr)

〈논문접수일: 2025. 7. 11 / 심사개시일: 2025. 7. 13 / 심사완료일: 2025. 7. 31〉

Abstract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san and Busan Port Through Text Mining: Research Trends in Hangdo Busan Articles

Seong, Eun-hye
Kim, Sang-goo

The relationship between Busan and the Port of Busan was examined through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dentified in articles published in Hangdo Busan from 1962 to 2025. To analyze research trends, the criteria identified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researcher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considered whether research funding was provided, the number of researchers, the researchers' affiliations, their positions, and their regions. Second, in terms of research content, the analysis utilized the research fields (both major and minor categories), as well as the temporal and spatial scope of the research subjects. Third, relevant papers were explored using marine-related keywords. Fourth, based on these factors, studies related to the Port of Busan were analyzed in detail.

The publication period of Hangdo Busan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ormative period (1962–1969), the establishment period (1991–2015), and the stabilization period (2016–2025). Across these periods, studies within the field of history demonstrated a diversity of researchers, disciplinary approaches, temporal ranges, and regional focuses. Based on a text mining analysis of stud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opening of the Port of Busan among marine-related keywords, it was inferred that the connection between Busan and the Port of Busan was not particularly close.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more actively investigate the lives, urban structur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usan citizens in relation to the Port of Busan.

Key Words: hangdo busan, research trends, busan, port of busan, text mining